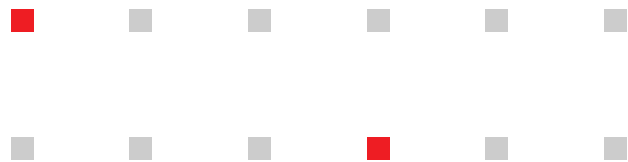




향가와 섬진강, 버려진 세월의 흔적과 공공미술

전북관광포럼 공공미술 현장워크숍 좌담



연구진 정명희 연구위원 mhjyung@jd.re.kr

문동환 연구원 army@jd.re.kr

양지인 연구원 sunshine@jd.re.kr

이번 호 이슈브리핑에서는 한국의 문화전문가들이 섬진강 향가와 한옥마을을 직접 답사한 뒤 한 한옥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를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 좌담형식으로 정리했다. 전문가들의 좌담에 이어 섬진강 향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공공미술을 통한 새로운 개발(혹은 보존)의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1월 17일 vol.25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향가와 섬진강, 버려진 세월의 흔적과 공공미술 전북관광포럼 공공미술 현장워크숍 좌담

Contents

2011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 4 | 개발의 참된 의미를 성찰해야 할 때
- 6 | 마스터플랜의 망상과 한계
- 7 | 스토리가 있는 향가, 예술성과 상업성의 양립
- 9 | 재미있는 상상들, 그러나 누구를 위해
- 11 | 불량경관 정비와 수질 개선, 섬진강의 제자리 찾기
- 13 | 인위적인 접근에 대한 반성

향가와 섬진강, 버려진 세월의 흔적과 공공미술 전북관광포럼 공공미술 현장워크숍 좌담

Discussion

- 좌담일 | 2010. 12. 21
- 장 소 | 한옥마을 공간 '봄' 세미나실
- 사 회 | 김정현
- 참석자
 김용택_ 시인
 김인수_ 환경조형연구소 그린바우 대표
 김은정_ 전북일보 선임기자
 김정현_ 화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 현_ 스토리텔링 작가
 승효상_ 건축가, 이로재 대표
 양길승_ 녹색병원 대표
 이종기_ 기업인
 이종민_ 교수, 전북대학교
 이종재_ 건축가, 내일의 도시 대표
 이해경_ 영화인, 여성영화제 대표
 임옥상_ 화가
- 정리·편집 |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팀

공공미술이 도시 및 농촌디자인에 서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면서 오랫동안 버려져 있거나 잊혀진 공간, 거리, 건물을 새롭게 보려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꼭 거창하고 유명한 문화예술공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미술과 접목 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재발견하고 나아가 공정한 문화공간을 만들자는 예술활동이자 또 하나의 운동인 셈이다.

전북발전연구원 각 팀의 연구자들은 2009년부터 연구과제, 세미나, 시군협의, 이슈브리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몇 차례의 탐색전을 펼쳐왔다. 물론 이런 공공미술은 전북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다. 전주 한옥마을 옆에 위치한 동문사거리의 거리미술이나 진안의 마을만들기 등에서도 이런 시도들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전북도내에는 공공미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거리와 공간이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팀이 주관해온 전북관광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 특히 전북의 농촌지역들 가운데 많은 장소는 아름다운 풍광과 세월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과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들의 냄새가 남아 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1일에서 22일까지 이틀 간 이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저술과 실천활동을 하는 국내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섬진강의 한 줄기를 찾아가 보았다.

이번 호 이슈브리핑에서는 일명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섬진강 향가와 한옥마을을 직접 답사한 뒤 한 한옥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최소한의 편집만 거쳐 이슈브리핑의 독자들에게 날것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한다. 전문가들의 좌담에 이어 섬진강 향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공공미술을 통한 새로운 개발(혹은 보존)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정현 | 오늘 모처럼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전북의 산과 강을 둘러봤습니다. 섬진강 줄기를 찾아 시인도 만나고 시인의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오늘 전북발전연구원이 추천한 장소 중에 향가는 참으로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 공간을 공공미술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향가 터널과 교각을 중심으로 오늘 답사지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의 참된 의미를 성찰해야 할 때

본래 개발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마스터플랜은 메트로폴리스와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와 같이 팽창을 지향하는데 요새는 메타폴리스(metapolis)를 말합니다. 성장적 도시라고 해서 개념이 달라진 거죠. 성장위주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승효상 | 아까 향가에서 김정헌 위원장님께서 제게 농담처럼 개발론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개발론자 맞습니다. (웃음) 전 확실히 개발론자입니다. 사실은 개발이란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요새 각 지자체마다 개발공사를 발전공사로 다 바꿨는데, 이게 참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본래 개발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다만 개발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개발이란 말을 한자로 보면 개(開)자가 시작할 개자 아닙니까. 중간에 문이 있고 가운데가 손을 내민다는 뜻이거든요. 발(發)자는 안에 보면 활 궁자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자를 빼면 짓밟을 발자가 됩니다. 궁자가 있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솟을 발자입니다. 솟 발자. 발사, 발휘, 발전..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건 문을

열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김정헌 | 네. 그렇군요

승효상 | 발전은 익스팬션(expansion), 즉 팽창을 말합니다. 전개하고 성장한다, 이런 단어거든요. 발전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말장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이란 게 있습니다. 4대강이 왜 문제냐, 4대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마스터플랜의 추억에 젖어 있습니다. 이게 서양이 가지고 있는 깊은 사고와 관계가 있는데, 모든 것을 위에서 쳐다보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1924년에 꼬르뷔제¹⁾가 마스터플랜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유행이 되어서 전 세계가 마스터플랜의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마스터플랜은 모든 걸 지우고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활과 행동패턴을 자기가 다 정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비롯된 게 마스터플랜이거든요. 그러나 마스터플랜의 효능은 195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나온 게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은 마스터플랜 시대입니다. 인간이 전지전능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거죠. 마스터플랜은 위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그리는 겁니다.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스케일이 100만분의 1 아무리 줄어도 25만분의 1입니다. 도시계획은 25만분의 1이 되죠. 그 안에는 인간이 삶을 살 수 있는 고유의 형태가 절대 표현되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표현됩니다. 그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등이 색깔로 표현됩니다.

이게 마스터플랜의 악몽입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하는 사람을 두고 나쁜 의미의 개발론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다른 시대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마이너플랜(minor plan)을 말합니다. 마스터플랜은 메트로폴리스와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와 같이 팽창을 지향하는데 요새는 메타폴리스(metapolis)를 말합니다. 성장위주의 도시라고 해서 개념이 달라진 거죠. 성장위주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메이저리티(majority)도 중요하지만 마이너리티(minority)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수가 중요한 듯한데 사실은 마이너리티 개개인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마스터플랜으로는 규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4대강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정말 근사합니다. 스펙타클하죠. 하지만 사실 그 안의 개개인의 디테일한 삶은 다 뭉개져 있는 거예요. 전체로서 보는 거죠. 황홀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1)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 20세기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마스터플랜의 망상과 한계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반성하고 내놓는 방법이 굉장히 들을 만한테 '불확정적 비움(indeterminate emptiness)'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설계나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니까 가장 기초적인 시설만 만들어주고 거기에 의거해서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는 얘기죠.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에 왜 나쁘냐면, 서양사람들은 도시를 만들 때 절대 땅을 보고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로마시대부터 머리에서 만들어요. 어떤 도시를 만들까. 머리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건설해야 되죠. 왜냐면 머리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울퉁불퉁하면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도시들은 죄다 평지에 만들어졌습니다. 절대 산지에서 만들어진 계획도시가 없습니다. 산지도시가 물론 있죠. 하지만 이건 자연발생적이거나 도시방어와 같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모더니즘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으로 일원화, 조직화 되었는데 이걸 서양 사람들이 아 이걸 아니구나 하고 버려 버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시 직수입하면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나라 도시는 평지가 아니잖아요. 원래 국토가 산지니까 배산임수, 이걸 지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조선의 수도를 서울로 정할 때 땅을 보고 찾아가서 만든 거거든요. 그니까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고 만든 도시가 아니라 땅에서 굳게 서서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현대화하고, 직수입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토건공사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은 이렇게 많은데 서양의 평면식 방법을 가져오니까 산이 있으면 깎아야 되죠, 계곡이 있으면 메워야 하구요. 그러니까 토목량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불합리하죠. 사실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서양은 이미 이런 방식을 버렸죠. 서양사람들은 요즘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컨대 2000년에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내건 표제가 지난 2천 년 간의 만들어진 방법을 반성하면서 "미학보다는 윤리를 (less aesthetic, more ethic)"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윤리라는 건 '관계'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

는 건 이게 미학이 아니라 윤리의 방법인데 윤리의 방법은 항상 상대적 아닙니까. 각종 디테일이 들어가면 다 다른 거거든요. 모든 조건이 다 다르니까 다른 조건마다 다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마스터플랜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개발이라는 말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발사하는 겁니다. 최초의 사건만 만들어 주는 거죠. 나머지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발전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스터플랜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정해주는 거죠. 근데 건축이나 도시가 미래를 고정시킨다는 건 다 사기거든요. 당신이 20년 후에 이렇게 설계한 집에서 살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걸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서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도시계획도 보면 25년 후의 플랜, 50년 후의 플랜, 보랏빛 청사진을 내놓고 그랬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걸 왜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측정불가능한 존재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수정하는 플랜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반성하고 내놓는 방법이 굉장히 들을 만한테 '불확정적 비움(indeterminate emptin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설계나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니까 가장 기초적인 시설만 만들어주고 거기에 의거해서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무슨 테마파크네 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 마스터플랜적 방법이에요. 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과 공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내놓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인프라, 기간시설만 설계해서 내놓고 나머지는 세월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다 달라서 한 번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마리만 내놓으면 되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향가, 예술성과 상업성의 양립

그것이 세워지던 시절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연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은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거든요.

반드시 예술성과 상업성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업성이 결합되려면 결국 관심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 교각에 뭘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걸 보러가자 하는 식으로 관심을 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현 |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향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향가는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간이 일제시대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일반 교각이나 터널과 다름이 없는 거지요. 반드시 여기를 공공미술로 작업하려면 배경설명 정도의 일반적인 해설 이외에 좀 더 깊게, 그것이 세워지던 시절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연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은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거든요. 이러한 연구가 좀 더 진행돼서 터널과 교각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그 이야기 속에서 조형적으로 공공미술의 작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섬진강이 있고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또 터널과 교각이라는 인공적인 조형물은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 또 다른 것을 추가하기보다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섬진강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머무름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중재 | 일단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전형적인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꼭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 봤을 때 제일 아쉽고 답답한 것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맘에 들면 자료 찾아서 보고 맘에 안 들면 욱하고 투덜대고 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향가를 직접 보고 나서 약간은 실망스러웠는데요. 현장에서 세월의 무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그 오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미술적 장치가 과연 쉽게 만들어질까.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을 너무 많이 보아왔죠. 아마 오늘 향가에서 받은 느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교각이 가지고 있는 세월의 무게도 엄청났구요, 주변 풍경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손을 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우선 그냥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잘 만들어놓고 쓰레기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거든요. 시골에 농약포대, 노끈들 그런 거 더



내버려두고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기 | 문화콘텐츠와 상업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화제의 중심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어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성과 상업성을 결합한 화제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요새 각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 소스를 개발해서 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성도 있지만 상업성, 그러니까 자기 지자체에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어서 화제의 중심도 되고 여러 가지 상업적 수익도 노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향가의 교각이나 터널의 개발은 반드시 예술성과 상업성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업성이 결합되려면 결국 관심의 중심에서야 되는데 그 교각에 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 그걸 보러가자 하는 식으로

관심을 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보통 섬진강 하면 김용택 시인하고 매화꽃을 연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걸 보고 제가 생각한 건, 우선 주변을 정리해서 매화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각이 딱 10개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십장생에 관심이 많으니까 10개의 교각에

화가에게 맡겨서 십장생도를 하나씩 그리게 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교각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십장생을 그려놓으면 정말 대작이고 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은 매화꽃을 심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걸 십장생교다 이렇게 하면, 순창 모처에 있는 마을에 가면 매화도 보고 십장생도를 본다. 그런데 십장생도는 장수의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든지 뭐 병난 가족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오래 장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업성도 결합되고 화제의 중심에 서고, 그래서 봄에는 매화꽃 보러, 보통 때는 십장도 보러 이런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상상들, 그러나 누구를 위해

아까 이종기 선생님은 십장생을 말씀하셨지만 그 교각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구요, (.....) 이렇게 인구생태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골에서 누구를 위한 관광이고 누구를 위한 문화콘텐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경 | 저는 섬진강 물을 보기 전까지는, 막 배고픔을 해결하고 난 뒤였으니까 그 다음에 터널을 지나가면서 혼자 많이 즐겼어요. 상상을 하면서요. ‘어둠속의 여행(journey in the darkness)’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터널이라는 공간에서 삶과 죽음을 건너가는 의식 같은 것도 참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어요. 혼불, 어두움 이런 것들이죠. 그 터널들 속에서 느끼는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이 밝음보다 더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좋아하는 그, 꼭두의 네 개의 죽음의 길로 안내하는 꼭두의 기능이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고 또 수호하고 하나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말이죠. 지금은 고령화 사회고,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없죠. 그런 현실에서 향가의 터널에서라면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미술이든 퍼포먼스든 뭐든 굉장히 재미있겠다 생각했어요. 음악도 거기에서 녹음을 하면 참 재밌겠다.



여기가 크레타섬의 동굴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 일제시대의 터널의 의미도 생각하면서 역사성도 살

려내고 뭐 여러 의미를 붙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터널을 나와서 (섬진강) 물을 보는 순간 여기에

서 뭘 한단 말인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섬진강)을 살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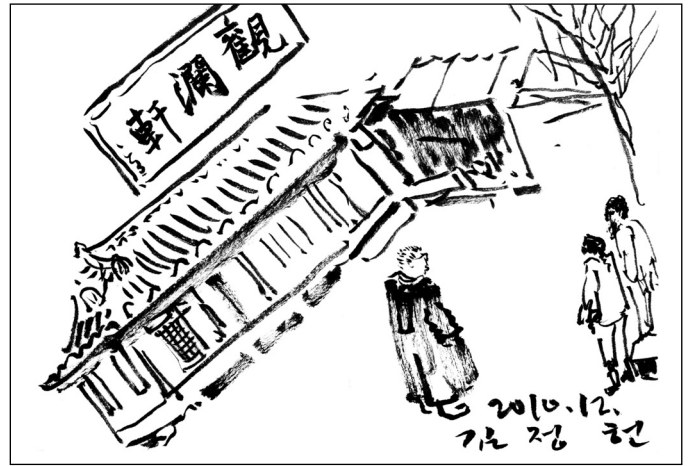
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노는 걸 참 좋아하지만 여기에서 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김용택 시인 동네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물고기를 정말 한 마리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진동하는 거예요.(섬진강의 모래와 자갈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김용택시인의 마을 앞 섬진강에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악취가 난다. 그 강물 속에 손을 담그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편집자 주) 그래서 제가 섬진강을 다녀간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나, 제가 그 때 섬진강을 갈 때마다 섬진강을 그리워하고 섬진강이 가지고 있는 가냘픔과 화려함과 섬세함과 그 은빛 햇살에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모두 좋아했는데 냄새가 너무 진동해요. 그래서 아 여기서 노는

건 안 된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논란 말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인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향가의 교각들, 그리고 교각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아까 이종기 선생님은 십장생을 말씀하셨지만 그 교각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응모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예모의 최근 작품에 대해서 점점 생각이 많아집니다. 갈수록 더 싫어지는 느낌인데요. 장예모 감독이 최근에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낸 연극은 좋았습니다. 그 여강에 가서 10여개의 소수민족들과 함께

5~600백 명 정도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좋은 거지요. 미술가라도 좋고 연극연출가라도 좋고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살려내면서 주민들의 동의하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식이지요.

아까 섬진강가의 김용택 시인 동네도 몇 가구 정도밖에 안 사시는 거 같고, 그나마 노인분들만 남아계신 형편이에요. 이렇게 인구생태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골에서 누구를 위한 관광이고 누구를 위한 문화콘텐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량경관 정비와 수질 개선, 섬진강의 제자리 찾기

김인수 |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오늘 향가에서 점심은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향가가 살아나려면 그 식당을 먼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거꾸로 갈 때에는 몰랐는데 (향가) 터널에서 나올 때에 딱 펼쳐지는 풍경이... (웃음) 그 집만 정리가 좀 되고, 그 다음에 그 개집하고 쓰레기만 없어진다면 그대로 좀 봐줄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섬진강을 많이 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김용택 선생님 댁 신문이나 사진에서 볼 때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앞에서 쳐다보는 사진만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가보니까 이거 뭐 흥

측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갔던 곳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는 섬진강 내려가는 모습이랑 그대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축대 쌓아 놓은 거 몇 개 좀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만 해 놓으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섬진강이라고 기억했던 강의 어떤 그 모습 있잖아요. 그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향가의 교각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아까 여쭙봤는데 대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기찻길이었는데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놓고 보면 6.25 때 지리산에서 폭탄에 파괴돼서 다리 날아가고 교각만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처음 오신 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안에 뭘 만든다거나 하는 건 좀 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더 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마을만들기 한다고 해서 가보고, 저도 이런 저런 프로젝트 참여 해 봤지만 청소만 하면 좋을 마을에 청소는 안하고 (웃음)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잔뜩 민박하고 뭐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청소 깨끗이 하고 아까 그 밥집 있잖아요, 거기만 정리되면 터널에서 딱 나왔을 때 섬진강의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던 섬진강의 모습 같은 것들(볼 수 있을 텐데) 전혀 뭐가 안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임옥상 | 말씀 들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아까 거기 (향가)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라고 미션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앞의 몇 분들이 물꼬를 터주어서 저도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풍광, 자연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도 늦지 않죠. 승효상 선생의 얘기를 빌리자면 거기는 아주 최소한의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교각과 터널이 있으니까. 난 그거면 족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괜히 뭘 성격을 주고 바를 필요가 없다. 주변이 살고 그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가서 뭘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억지로 사람을 몰아넣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여기가 과연 의미가 있고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괜히 급하게 뭘가를 만들어야내고 표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디자인 내지는 지자체 거버너들이 가지고 있는 초조한 생각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좀 한 박자 쉬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거기에 사람이 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내가 여기 왜 살고 있으며 여기 살면서 무슨 행복을 누리는가를 생각해야죠. 우리 한 번 갔다가 보니까 아주 멋있더라, 그래서 뭐 이리이러한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아이디어를 내라면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보다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족을 붙이자면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철도터널 뚫다가 만든 교각인데 그게 과연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김용택 | 터널에 대한, 일제시대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애깃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토목공사의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개발의 흔적일 뿐이에요. 특이한 장소다.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양길승 |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가서 봐서는 기존의 이야기로 할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터널에서 나오는데, 나오니까 좋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터널에 있으면 안 돼요. 조사하면 터널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터널에서 나오니까 다 좋아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가지로 모으면 제일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장소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게요. 하지만 지금 향가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갑니다. 우리 외에는 거의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되게 하는 끼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세어 보니까 향가 터널이 제 발걸음으로 558걸음이라구요. 한 사람이 558걸음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름을 걸어줘요. 당신이 이곳을 걸어갈 때 생각할 수 있는 것. 뭘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무엇을 느낄 것인가. 저는 나올 때 편했어요. 이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자기가 느끼는 불편함을 나와서 풀 수 있는 이름을 걸어서 체험으로 잡아야 돼요.

박현 | 전북발전연구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순창이잖아요. 관광객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정해져야 할 텐데, 일단 제 머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스토리텔링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

거든요. 저는 거기를 기업을 되살리는 스토리도 있다고 봐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순창하면 고추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을 그 쪽으로 오게 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일본이 수탈해간 흔적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는 그 사람들의 몫이죠. 수탈을 했느냐 개발을 했느냐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순

창의 지역과 같이 패키지화해서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한국사람에게도 매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위적인 접근에 대한 반성

없어지는 걸 괜히 억지로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스토리텔링?
말도 안 됩니다.
스토리 리스닝을 해야 합니다.
아니, 가서 앉아 있으면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족한 거예요

승효상 | 저는 우리가 우리 세대 때 모 든 걸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대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존해서 넘겨야 돼요. 그게 시대적 요청이고 임무지,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시대적으로 우리는 교육도 덜 받았고 깨지도 못했고 설익고 이런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의 지혜를 믿고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임옥상 | 보존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 질러서 문제를 만들었죠. 안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죠.

승효상 |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건축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재료가 시간입니다. 아무리 못생긴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워 보여요. 아무리 설계가 잘 못되어서 태어났어도 100년만 지나 봐요.

김정현 | 아까 김용택 시인이 얘기를 했어요. 손을 안댄 듯이 대는 게 짙 좋다.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중론인 거 같습니다.


김용택 | 왜냐면 우리가 손을 대려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냥 놔두자. 물

만 살리자. 그리고 시골이라는 게, 시골을 생각해야 돼요. 시골이 지금 마을이 없어지고 있는데 거기엔 돈을 들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다 망했어요. 뭐 테마마을 이것도 다 실패했어요. 그니까 짙 좋은 방법은 강을 살리는 거예요.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승효상 |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골이 없어져가잖아요. 없애야 돼요.

김용택 |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승효상 | 없어지는 걸 괜히 억지로 살

리려고 하면 안 돼요. 좀 전에 얘기했는데 스토리텔링? 말도 안 됩니다. 스토리 리스닝을 해야 합니다. 아니, 가서 앉아 있으면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죽한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발견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없는 얘기를 테마마을 같은 걸로 꾸며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에 스토리가 엄청 많아요. 자연이 주는 스토리가 정말 많은데 그걸 들려주려고 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 좌담후기 -

2시간여에 걸친 전문가들의 좌담은 이렇게 끝났다. 좌담이 끝나고 늦은 밤에 시작된 뒤풀이는 더 기발했지만, 뒤풀이에서 오간 이야기까지 지면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어쨌든 각각 대한민국에서 내로라는 개성과 문화 전문가들이니만큼 대화는 재기발랄했고 유쾌했다. 각자 각자의 말은 엮치락뒤치락했지만 토론의 흐름은 명확했다. 좌담이 끝난 후에 전북발전연구원 문화관광팀은 고민에 빠졌다. 오늘의 이 좌담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우리가 내린 결론은 오늘의 대화를 낱것 그대로 지면에 소개하지는 것이었다.

그 동안 전발언이 났던 이슈브리핑은 대개 분명한 정책제언과 정보를 담고 있었다. 주장을 명확히 했고, 연구자의 생각과 의도를 분명히 전달해왔다. 그러나 이번 좌담과 같은 방식으로 이슈를 제기하여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에 정답은 없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 자체로 다양성이고 관용이다. 이번 좌담에 참여해 주

신 분들이 각기 자기 영역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다.

알려진 대로 향가는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잘 차려진 유원지도 아니다. 섬진강을 끼고 있고 그 자연 속에 이색적인 터널과 교각이 버려진 채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일제가 물러간 이후 무려 65년간을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그냥 방치되어 버린 장소다. 그러나 이 향가의 풍경과 역사와 섬진강을 보면서 이 장소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느낀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뭔가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번 좌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앞서 보셨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이 자꾸 이 장소를 통해 뭐가 말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계몽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자연과 풍광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게 하라는 것이다. 승효상 선생의 열변은 계획이 능사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좌담의 기록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 제발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놔두

되, 본래의 모습으로 놔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메시지였다. 농담처럼 흘러 다닌 이야기였지만 향가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청소나 좀 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섬진강의 지금 모습에 대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강을 이대로 두고서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이냐는 탄식과 안타까움이 답사 내내, 토론 시간 내내 이어졌다. 향가의 섬진강, 시인의 마을 섬진강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진에게도 가장 무겁고 가슴 아픈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돌이켜 보면 향가는 전라북도 곳곳에 있다. 향가와 같이 아름다운 고향산천이 전북에는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있다. 모두가 잠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풍경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장소와 공간들이다. 다들 얼마나 아름다운 조국산천인지 모른다.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지 말



고, 그대로 두되 원래의 모습대로 두어야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고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첫날밤의 좌담을 잡아주신 분은 김정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었다. 선생께서는 자신이 지금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마을만들기를 직접 실천하고 계신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아끼면서 토론을 정돈해 주셨다. '원래대로 놔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강물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었다.

전체 일정과 좌담에 참여해 주신 분 가운

데는 이종민 교수와 김은정 선임기자도 있었다. 30여년간 지역문화의 중추로 활동해 오신 분들이다. 그러나 이번 좌담에서는 두 분 모두 손님들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를 위해 절제하고 경청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가의 진정한 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믿는다. 그 첫걸음은 '인식'이라고 믿는다. 그 장소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의미 있다고 판단하고,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뭔가 해

보자는 마음과 생각이 첫 출발점이라고 믿는다. 그 첫 출발의 마음을 이번 호 이슈브리핑에 담는다. 전발연 이슈브리핑의 독자들께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향가에 그냥 놀러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가시려거든 가서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조금만이라도 치우고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연구자들도 날 풀리면 가서 치우는 일에 손을 좀 보태볼까 한다. (편집자)

향가(香佳), 향기로운 물과 아름다운 산

행정 구역상 섬진강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과 남원시 대강면,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의 접경 지역에 위치함. 순창 향가마을은 섬진강의 중간지점, 강물이 산자락을 휘감고 도는 곳에 있으며, 향가유원지라고도 한다.

섬진강의 강물을 향기로운 물(香水)이라 하고, 근처의 옥출산을 가산(佳山) 즉 아름다운 산이라 하여 향가(香佳)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섬진강의 물색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향가유원지는 미 지정 유원지로서 대부분 여름철 피서지로 이용객이 한정

되어있으며 옥출산을 배경으로 강 주변에 모래밭이 형성되어 있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자연수변경관이 발달하였으나 지역 여건상 이용 가능한 부지가 비교적 협소하여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다.

섬진강을 따라 나지막한 산이 이어지고 강폭은 약 100m이며 담수량이 풍부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가 용이하다. 강변에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지며 기암과 노송을 비롯한 수목이 어우러져 있다. 일제시대에 남원과 담양방면의 곡물수탈을 위해 건설 중이던 철교와 향가 터널이 해방과 동시에 공

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하천 유역 내에 방치되어 있다. 교량은 상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개의 교각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향가 터널과 철도 잔교가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다. 향가터널은 철도용으로 만들어졌으나 완공 전에 해방을 맞아 레일은 깔리지 않았고 길이는 약 380m에 이른다. 차 한대가 지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으며 내부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현재 향가마을 관광자원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나 수변 공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한 상황이다.